

한국역사가 50년인 줄 아는 사람이 많아서 놀
안타깝습니다. 한국은 근대 일본에게 강도를
당해 착취 당한 것이지,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식 탐구와 사치가
넘쳐난 나라였죠. 한국은 5천년 이상의
역사와 문화예술이 녹아있는 거대한 용광로
같은 뜨거운 나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름답고 무용한 사치품과 예술품을
좋아하는 것도 이미 금속을 제련하고 예술을
즐기던 문화가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꾸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강조하느라 한국의 역사가 짧아지네요. 50년
만에 이룩한 게 아니라 착취 당하기 전 본
모습을 찾아가는 저력이 강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다시 부자되는
방법을 압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계속 가난할 이유가 없지요. 홍익인간을
근본으로 하는 한국인들은 너무 순진하고
관대한 것이 문제입니다. 일본은 언제나
한국을 등 뒤에서 비수로 찌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음해하고
공격중입니다. 절대 방심하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역사를 잊는 순간 비극은
되풀이되니까요.